



◆ 제30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과학상수상자

韓文熙박사 <생명공학연구소 연구위원>

기초생명과학 연구 활성화에 기여

국 내 유전공학 기술개발 기반구축과 기초 생명과학 연구의 활성화, 산·학·연 협동 및 국제협력 환경조성에 업적을 쌓아온 생명공학연구소 한문희(韓文熙·63)연구위원이 제30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 과학상을 수상했다.

“지난 74년 KIST에 유치되어 오늘날까지 생명공학관련 연구개발과 아울러 우리나라 유전공학 그리고 생명과학분야의 육성을 위해 전념해 왔습니다. 저의 이러한 조그마한 노력이 우리나라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어서 기쁜 마음 그지없습니다.” 한문희박사의 수상소감이다.

한위원은 '74년 귀국 후, 국내에서 우리 연구진과 힘을 합쳐 설당대체 감미료인 이성화당 생산, 항결핵제 리파마이신 유도체 생산공정, 인공 제설제 빙핵활성 단백질 생산공정 개발 등에 성공하여 산업화를 했으며, 이러한 연구개발과정에서 연구논문 1백10여편을 발표했고, 국내외 특허 30여건을 획득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유전공학센터를 설립하고 유전공학 기술개발 기반구축과 관련, 인력양성에 힘써 왔으며 생화학회장, 한국 BRM 학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제학술대회 등을 주관

하고, 국내 기초 생명과학 연구의 활성화, 산·학·연 협동 및 국제협력 환경조성에 노력해 왔다.

한위원은 “미생물 및 효소공학적 기초연구를 통하여 국제특허를 획득했을 뿐만아니라 우리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초로 하여 기업화에 성공하고, 생명산업 발전에 일조를 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의 항결핵제의 생산공정을 위한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개발은 산업화를 통하여 그간 수입해오던 항결핵제 중간원료를 전량 수입대체하고, 나아가서는 수출 산업화까지 했다. 이 기술은 발효기술을 통한 리파마이신 B 원료생산 그리고 화학합성 공정을 개발함으로써 당시 신약개발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또한 한위원의 유전공학의 육성노력은 80년 초에 전무했던 유전공학기술 기반구축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생명과학의 주요 분야인 분자생물학 및 생화학분야의 기초연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는 분명히 생명공학의 시대가 될 것이며,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한위원은 “깨끗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사는 사회가 곧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복지사회이며, 바이오토피아(생명사회)가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의 구현은 생명공학의 발전에 의해서 이룩할 수 있으며, 생명공학의 발전은 생명과학의 진보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현재 한위원은 암의 분자생물학적 연구와 항암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생물다양성의 조사 및 D/B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상생활도 연구업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한위원은 연구업무에 있어서는 앞을 내다보는 비전과 계획성 그리고 집념을 갖고 꾸준하고 성실히 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 심성을 기를 것을 후학들에게 주문하기도 한다. 취미는 난 재배와 바둑, 등산이라고. 부인 유화영여사와의 사이에 미국 케디슨사의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큰 아들(봉규)과 캘리포니아 예술대에서 컴퓨터애니메이션 공부를 하고 있는 둘째 아들(용규), 출가한 딸(정화)등 2남 1녀를 두고 있다.